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74-2호)

여론속의 여輿論論

기획: 2025-2026년 겨울, 어떻게 지내셨나요?
- 겨울날씨에 대한 인식

2026. 4. 8

담당자 |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선임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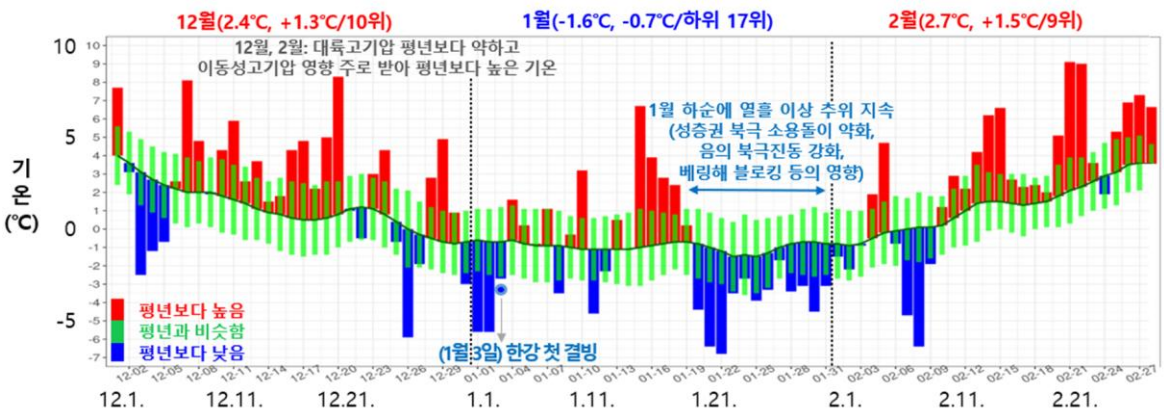
1

2025-2026년 겨울 날씨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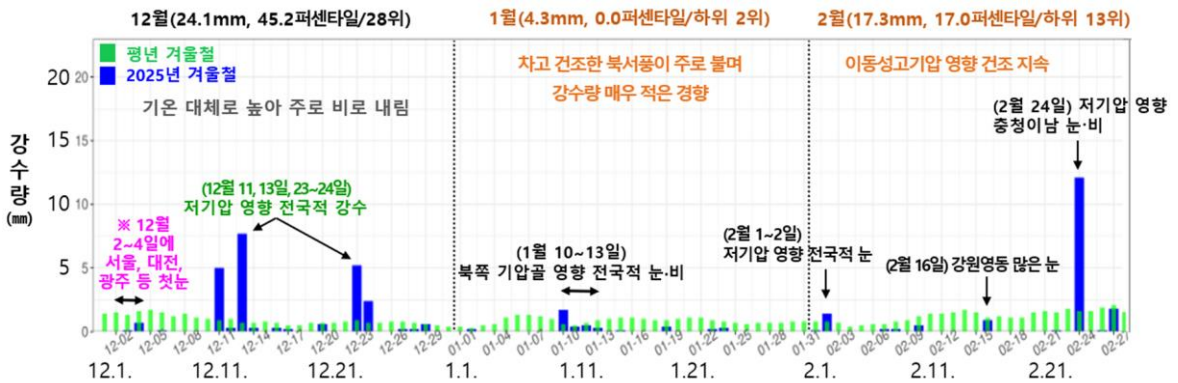
2025-2026년 겨울 강수량, 평년의 절반 수준 1월 강수량 4.3mm... 역대 두 번째로 적어

지난 3월 4일, 기상청은 [2025년 겨울철\(2025년 12월~2026년 2월\) 기후특성을 발표](#)했다. 이번 겨울 전국 강수량은 45.6mm로 평년(89.0mm)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1월 강수량은 4.3mm로 역대 두 번째로 적었고, 1~2월 누적 강수량 역시 21.5mm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적은, 건조한 겨울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건조한 겨울이 이어진 가운데, 겨울철 전국 평균기온은 1.1도로 평년보다 0.6도 높았다.

2025-2026년 겨울철(2025년 12월 ~ 2026년 2월) 전국 평균기온 분포도 및 일별 시계열



2025-2026년 겨울철(2025년 12월 ~ 2026년 2월) 전국 강수량 분포도 및 일별 시계열



출처: 2025년 겨울철 기후특성, 기상청 보도자료, 2026년 3월 4일
https://www.kma.go.kr/kma/news/press_01.jsp?bid=press&mode=view&num=1194607

이번 겨울 기온 인식, 추웠다(31%), 비슷했다(39%), 따뜻했다(30%) 세 갈래로 엇갈려 강수량은 예년보다 적었다(55%)고 체감한 사람이 절반 이상

2026년 3월 27일 ~ 30일 진행한 조사에서, 이번 겨울 기온이 예년보다 추웠다(31%), 예년과 비슷했다(39%), 예년보다 따뜻했다(30%)는 응답이 큰 차이 없이 엇비슷하다. 실제로 이번 겨울은 평년보다 0.6도 높은, 다소 따뜻한 겨울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년보다 따뜻했다기 보다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더 추운 겨울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 특히 18-29세의 40%는 이번 겨울이 예년보다 더 추웠다고 답했다.

강수량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5%가 예년보다 눈·비가 적게 내린 겨울이라고 답했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30%, 예년보다 많이 내렸다는 응답은 15%이다. 올 겨울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건조한 겨울이었는데, 사람들의 인식 역시 대체로 같은 방향이다. 다만 연령대가 낮을수록 예년보다 눈·비가 적게 내렸다는 응답도 낮아져, 18-29세에서는 45%에 그친다.

18-29세는 40%가 올 겨울 예년보다 추웠다고 인식, 다른 연령대 대비 높아 연령대 낮을수록 올 겨울 강수량 예년보다 적었다는 인식도 줄어들어

(단위 : %)

	사례수 (명)	기온			강수량		
		예년보다 추웠다	예년과 비슷했다	예년보다 따뜻했다	예년보다 많았다	예년과 비슷했다	예년보다 적었다
전체	(1,000)	31	39	30	15	30	55
성별							
남자	(495)	30	39	31	15	32	53
여자	(505)	32	38	30	16	29	56
연령							
18-29세	(150)	40	33	27	23	32	45
30대	(150)	27	45	28	16	35	49
40대	(169)	28	43	29	13	36	51
50대	(194)	32	37	31	14	28	58
60대	(179)	31	34	36	14	24	62
70세 이상	(158)	30	40	30	11	28	60
거주지방							
중부지방(수도권, 충청, 강원)	(646)	32	38	30	16	28	56
남부지방(영남, 호남, 제주)	(354)	30	39	31	14	34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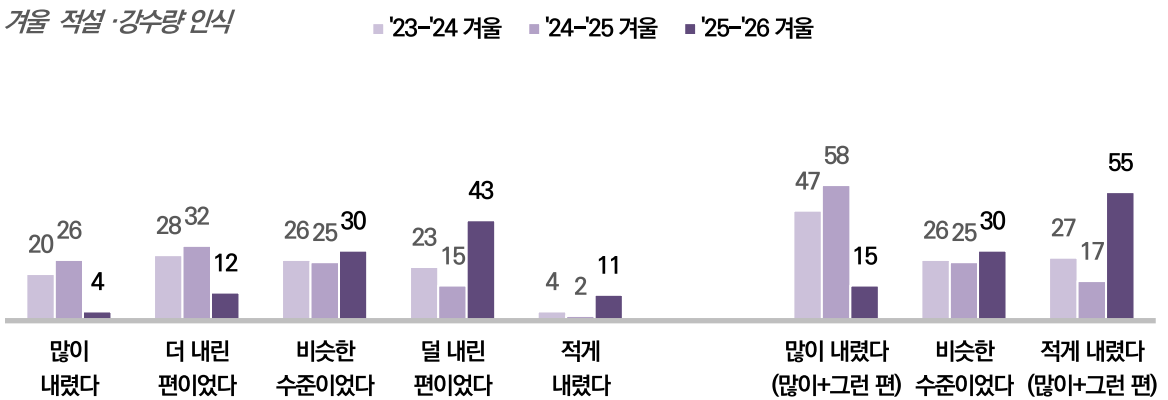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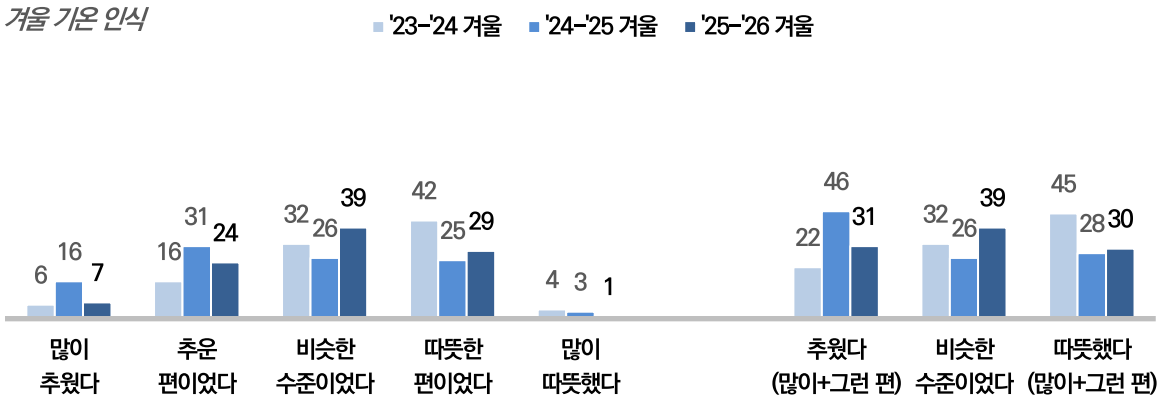
질문 : (기온) 2025-2026년 겨울 날씨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이번 겨울 날씨는 예년에 비해 어땀던 것 같습니다?
(강수량) 2025-2026년 겨울에 내린 눈·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내린 눈·비는 예년에 비해 어땀던 것 같습니다?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3. 27 ~ 30

2025-2026 겨울, 예년보다 추웠다 31%, 비슷했다 39%, 따뜻했다 30%, 사람들 인식 엇갈려 절반 이상(55%)은 예년보다 눈·비가 적게 내렸다고 체감

(단위: %)



질문 : (가온) 겨울 날씨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올 겨울 날씨는 예년에 비해 어땀던 것 같습니다?
 (적설·강수량) 겨울에 내린 눈·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내린 눈·비는 예년에 비해 어땀던 것 같습니다?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4. 3. 22 ~ 25 // 2025.03. 21 ~ 24 // 2026. 3. 27 ~ 30

2 2025-2026년 겨울나기

이번 겨울 날씨로 인해 약속 취소하거나 해야 할 일을 못했다 20%, 지난해 대비 감소 3명 중 1명(33%)은 이번 겨울 날씨 때문에 외출과 야외활동 줄어

이번 겨울, 추위나 폭설·폭우 때문에 외출과 야외활동이 줄었다는 사람은 33%이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 응답). 외출과 야외활동이 줄었다는 응답은 18-29세(44%)에서 가장 높고, 중부지방(37%) 거주자가 남부지방(27%) 거주자보다 10%포인트 높다.

춥거나 건조해서 밤잠을 설쳤다는 사람은 전체의 23%이다. 지난 겨울(25%)과 비슷한 수준으로, 2023-24년 겨울 이후 20% 초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30대(33%)와 40대(30%)는 밤잠을 설쳤다고 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 대비 높다. 스스로를 최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31%가 밤잠을 설쳤다고 답했다.

추위나 폭설·폭우 때문에 약속을 취소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은 20%로, 지난 겨울(33%) 대비 13%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2024-2025년 겨울은 강수량만 놓고 보면 역대 4번째로 적은 건조한 겨울이었고 기온 역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눈이 자주 내렸고, 특히 공식적으로는 겨울이 아닌 2024년 11월 말과 2025년 3월에 내린 폭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었다. 반면 이번 겨울은 강수량도 평년의 절반 수준, 눈이 내린 날도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난해보다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추위나 폭설·폭우 때문에 병원에 갈 정도로 건강이 나빠진 사람은 8%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겨울 무기력하거나 의욕이 떨어졌다 30%, 기분이 우울하거나 가라앉았다 28% 겨울철 무기력·우울감은 여성, 주관적 계층인식 최하층에서 높게 나타나

계절에 따른 감정 상태도 같이 확인해 보았다. 이번 겨울에 무기력하거나 의욕이 떨어졌다는 사람은 30%, 기분이 우울하거나 가라앉았다는 사람은 28%이다. 두 감정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경험했다. 무기력하거나 의욕이 떨어졌다는 응답은 여성이 37%, 남성은 24%이며, 기분이 우울하거나 가라앉았다는 응답도 여성이 33%로 남성(23%) 대비 10%포인트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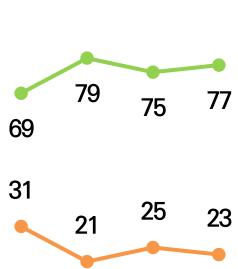
또한 스스로를 최하층으로 인식하는 사람에게서 이번 겨울 부정적 감정이 두드러진다. 최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43%가 무기력하거나 의욕이 떨어졌다고 답했고, 40%는 기분이 우울하거나 가라앉았다고 답했다. 이는 스스로를 중간층(무기력 22%, 우울 21%) 혹은 상층(무기력 20%, 우울 18%)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감정 경험 대비 두 배 가량 높다.

이번 겨울 날씨로 인해 외출·야외활동 줄었다 33%, 약속 취소하거나 해야 할 일을 못했다 20%
10명 중 3명은 이번 겨울 무기력(30%)과 우울함(28%)을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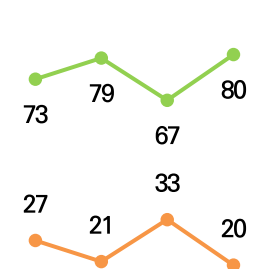
— '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 응답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응답

춥거나 건조해서 밤잠을
 설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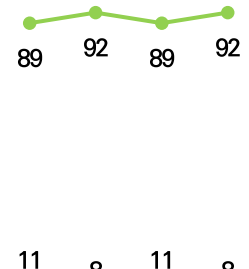
22-23 겨울 23-24 겨울 24-25 겨울 25-26 겨울

추위나 폭설·폭우 때문에
 약속을 취소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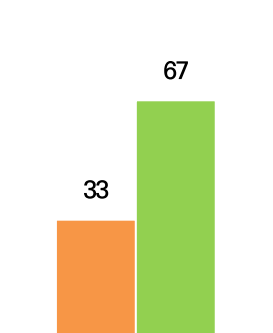
22-23 겨울 23-24 겨울 24-25 겨울 25-26 겨울

추위나 폭설·폭우 때문에
 병원에 갈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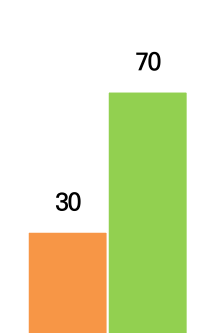
22-23 겨울 23-24 겨울 24-25 겨울 25-26 겨울

추위나 폭설·폭우 때문에
 외출과 야외활동이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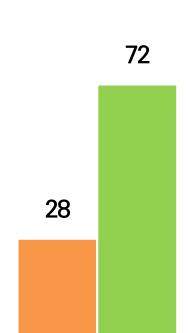
25-26 겨울

무기력하거나 의욕이
 떨어졌다



25-26 겨울

기분이 우울하거나
 가라앉았다



25-26 겨울

질문: (겨울 생활) 올해 겨울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겨울 감정 상태) 이번 겨울에 다음 각각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비고: 겨울 생활 중 '추위나 추위나 폭설·폭우 때문에 외출과 야외활동이 줄었다' 항목, 겨울 감정 상태 2개 항목은 2026년에 처음 질문함

응답자 수 :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 2023. 3. 24 ~ 27 // 2024. 3. 22 ~ 25 //
 2025. 3. 21 ~ 24 // 2026. 3. 27 ~ 3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18-29세의 44%, 중부지방 거주자의 37%는 이번 겨울 날씨 때문에 외출·야외활동 줄어 여성이 남성보다, 스스로를 최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번 겨울 무기력·우울함 더 많이 경험

(단위 : %)

사례수 (명)	겨울 생활								겨울 감정 상태			
	추위나 폭설·폭우 때문에 외출과 야외활동이 줄었다		춡거나 건조해서 밤잠을 설쳤다		추위나 폭설·폭우 때문에 약속을 취소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		추위나 폭설·폭우 때문에 병원에 갈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무기력하거나 의욕이 떨어졌다		기분이 우울하거나 가라앉았다	
	매우 매우 그렇다 + 그렇다 편이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매우 그렇다 + 그렇다 편이다	매우 매우 그렇다 + 그렇다 편이다	매우 매우 그렇다 + 그렇다 편이다	매우 매우 그렇다 + 그렇다 편이다	매우 매우 그렇다 + 그렇다 편이다	매우 매우 그렇다 + 그렇다 편이다	매우 매우 그렇다 + 그렇다 편이다	매우 매우 그렇다 + 그렇다 편이다	매우 매우 그렇다 + 그렇다 편이다	
전체 (1,000)	4	33	3	23	3	20	2	8	4	30	4	28
성별												
남자 (495)	3	31	3	20	3	19	2	8	3	24	4	23
여자 (505)	5	36	3	25	3	20	2	7	4	37	5	33
연령												
18-29세 (150)	6	44	1	20	3	24	3	11	4	36	4	34
30대 (150)	6	39	7	33	6	28	3	10	6	38	7	30
40대 (169)	4	37	6	30	3	21	3	13	8	36	9	34
50대 (194)	4	30	1	19	2	20	2	7	3	30	3	30
60대 (179)	3	25	1	21	1	11	0	4	2	20	3	21
70세 이상 (158)	2	27	1	16	2	14	1	3	0	24	1	22
거주지방												
중부지방(수도권, 충청, 강원) (646)	4	37	3	23	3	21	2	8	4	30	5	28
남부지방(영남, 호남, 제주) (354)	4	27	3	22	2	16	2	8	3	31	4	28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20)	6	36	3	24	3	21	3	9	6	36	7	35
3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402)	3	31	2	23	3	20	2	8	3	29	4	25
600만원 이상 (278)	4	33	3	20	3	17	2	7	2	25	1	27
주관적 계층인식												
최하층 (179)	6	34	4	31	5	23	4	13	9	43	9	40
중하층 (421)	3	32	2	22	1	18	1	5	3	32	4	29
중간층 (306)	5	32	2	19	3	18	2	9	2	22	3	21
상층 (71)	3	39	7	21	3	22	3	7	2	20	2	18

질문: (겨울 생활) 올해 겨울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겨울 감정 상태) 이번 겨울에 다음 각각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3. 27 ~ 3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이번 겨울 날씨가 평균적 날씨 범주 벗어났다 37%, 지난 겨울 대비 15%포인트 감소
이번 겨울 날씨에서 기후위기를 체감한 사람 48%, 지난 겨울 대비 12%포인트 감소

작년 2024~2025년 겨울은 폭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었고, 지난 2025년 여름은 평균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한 매우 더운 여름이었다. 이번 겨울은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적었지만, 기온은 평년보다 0.6도 높아 따뜻했다. 최근의 극단적인 날씨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평이한 겨울이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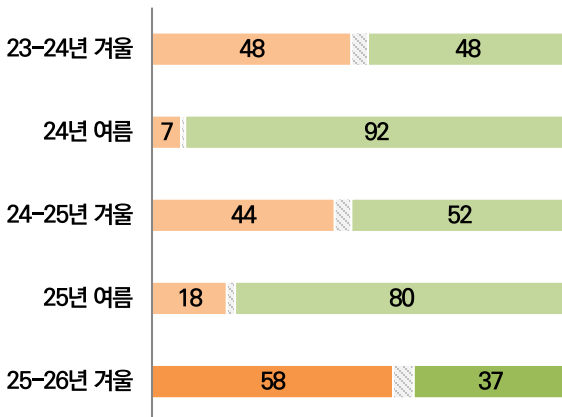
이를 반영하듯, 사람들의 인식 또한 지난 겨울 및 여름과 차이를 보인다. 이번 겨울 날씨가 평균적인 겨울 날씨와 큰 차이 없이 비슷했다는 의견이 58%로, 평균적인 범주를 벗어났다는 의견(37%)보다 21%포인트 높다. 지난 겨울 혹은 여름 날씨가 평균적인 날씨와 비슷했다는 인식이 과반을 기록한 것은 본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24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겨울 날씨에서 기후위기를 체감했다는 사람은 48%로, 지난 겨울(60%)과 비교하면 12%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겨울 혹은 여름 날씨에서 기후위기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50% 아래로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위기를 특별히 체감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3%로, 지난 겨울(33%)보다 10%포인트 늘었다. 다만 여성은 절반 이상(54%)이 지난 겨울 날씨에서 기후위기를 체감했다고 답해, 남성(42%)과 대조를 보인다.

이번 겨울 날씨가 평균적 날씨 범주 벗어났다 37%
지난 겨울 대비 15%포인트 감소

(단위 : %)

- 평균적 날씨와 큰 차이 없이 비슷
- ▨ 모르겠다
- 평균적인 날씨의 범주 벗어남



질문: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날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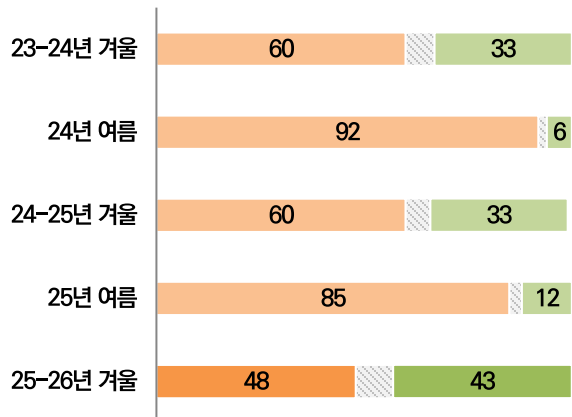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매년 3월(겨울날씨), 9월(여름날씨 인식).
2026년 조사는 2026. 3. 27 ~ 30

이번 겨울 날씨에서 기후위기를 체감한 사람 48%
지난 겨울 대비 12%포인트 감소

(단위 : %)

- 기후위기를 체감
- ▨ 모르겠다
- 기후위기 특별히 체감 안함



질문: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 이번 날씨에서...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매년 3월(겨울날씨), 9월(여름날씨 인식).
2026년 조사는 2026. 3. 27 ~ 30

**세대, 거주지역 등과 관계없이 이번 겨울 날씨는 평균적인 겨울 날씨와 비슷했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
여성 중 54%는 이번 겨울 날씨에서 기후위기 체감... 남성 대비 12%포인트 높아**

(단위 : %)

	사례수 (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겨울 날씨는...			이번 겨울 날씨에서 기후위기를...		
		평균적인 날씨와 큰 차이 없이 비슷	평균적인 날씨의 범주를 벗어남	모르겠다	체감했다	특별히 체감하지는 않았다	모르겠다
전체	(1,000)	58	37	5	48	43	9
성별							
남자	(495)	58	37	5	42	50	8
여자	(505)	57	37	6	54	36	10
연령							
18-29세	(150)	62	32	6	44	51	5
30대	(150)	59	32	9	45	42	13
40대	(169)	54	37	8	49	39	13
50대	(194)	58	40	2	52	39	9
60대	(179)	61	37	2	48	50	3
70세 이상	(158)	52	45	4	49	41	10
거주지방							
중부지방(수도권, 충청, 강원)	(646)	59	36	6	48	42	9
남부지방(영남, 호남, 제주)	(354)	56	40	4	47	45	8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20)	55	37	8	46	42	12
3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402)	55	41	4	51	42	8
600만원 이상	(278)	65	32	3	46	47	7
주관적 계층인식							
최하층	(179)	55	36	9	47	41	13
중하층	(421)	53	43	4	53	40	7
중간층	(306)	65	33	2	44	50	6
상층	(71)	68	28	4	41	50	9

질문: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3. 27 ~ 3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4

체감하는 겨울 종료 시점

이번 겨울, 3월 초순(22%) 및 중순(24%)에 끝난 것 같다는 의견 다수 체감상 겨울 종료 시점의 중앙값은 3월 10일

체감상 이번 겨울은 언제쯤 끝났다고 느꼈는지도 물었다. 3월 초순(1~10일)에 끝난 것 같다는 사람이 22%, 3월 중순(11~20일)이라는 사람이 24%로 3월 초·중순에 응답이 집중된다. 월별로 묶어 보면 3월에 겨울이 끝났다고 느낀 사람이 58%로 가장 많고, 2월이 29%, 1월이 2%이다. 조사 시점(3월 27~30일) 기준으로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은 것 같다는 사람도 11%이다. 체감상 겨울 종료 시점의 중앙값은 3월 10일이다.

기상청에서 보는 공식적인 겨울 기간은 12월부터 2월까지이다. 하지만 2월 안에 겨울이 끝났다고 느낀 사람은 전체의 31%에 그친다. 나머지 69%는 3월에 들어서야 겨울이 끝났다고 느끼거나, 조사 시점인 3월 말 기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 공식적인 계절 구분과 사람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계절 사이에 간극이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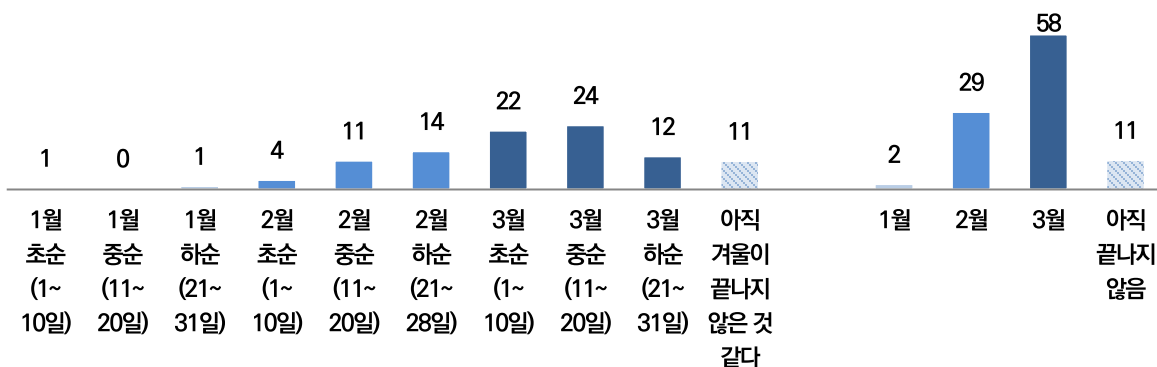
성별이나 거주지역에 따른 체감 차이는 크지 않으며, 연령대별로도 대부분 중앙값이 3월 10일로 동일하다. 다만 60대는 중앙값이 3월 15일로, 다른 연령대보다 겨울이 좀 더 길게 이어졌다고 느낀다. 18~29세에서는 3월 초순에 겨울이 끝났다는 응답이 33%로 전체 평균(22%)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겨울이 끝났다고 체감한 사람이 많다.

겨울 기온에 대한 인식에 따라 체감 종료 시점도 달라진다. 이번 겨울이 예년보다 따뜻했다고 느낀 사람의 중앙값은 3월 8일, 비슷했다고 느낀 사람은 3월 10일, 추웠다고 느낀 사람은 3월 15일이다. 예년보다 추웠다고 느낀 사람 중에서는 17%가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다고 답해, 따뜻했다고 느낀 사람(3%)과 큰 차이를 보인다. 같은 겨울을 보내지만, 기온을 어떻게 체감했는지에 따라 겨울의 길이도 다르게 느낀다.

기상청이 발간한 [우리나라 113년\(1912~2024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0년(1995~2024년) 체감 상 겨울의 길이는 87일로 과거 30년(1912~1940년, 109일) 대비 22일 짧아졌다. 하지만 계절 변화 체감 수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매년 같은 질문을 통해, 객관적인 기후 변화와 주관적인 체감 수준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겨울, 3월 초순(22%) 및 중순(24%)에 끝난 것 같다는 의견 다수
체감상 겨울 종료 시점의 중앙값은 3월 10일

(단위: %)



질문: 체감상, 이번 겨울은 언제쯤 끝났다고 느끼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3. 27 ~ 30

**60대, 예년보다 추운 겨울이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체감상 겨울 종료 시점 중앙값은 3월 15일로 다소 늦은 편**

(단위 : %)

	사례수 (명)	1월			2월			3월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은 것 같다	중앙값
		초순 (1~ 10일)	중순 (11~ 20일)	하순 (21~ 31일)	초순 (1 ~10일)	중순 (11~ 20일)	하순 (21~ 28일)	초순 (1~ 10일)	중순 (11~ 20일)	하순 (21~ 31일)		
전체	(1,000)	1	0	1	4	11	14	22	24	12	11	3월 10일
성별												
남자 (495)		1	1	1	4	11	11	23	25	13	10	3월 10일
여자 (505)		1	0	2	3	11	17	21	23	12	11	3월 10일
연령												
18~29세 (150)		0	0	1	5	8	12	33	21	8	11	3월 10일
30대 (150)		1	1	1	5	13	14	23	26	10	7	3월 10일
40대 (169)		1	0	0	5	11	12	23	24	11	14	3월 10일
50대 (194)		1	1	2	2	13	16	18	24	13	10	3월 10일
60대 (179)		1	0	2	2	10	15	19	23	19	10	3월 15일
70세 이상 (158)		1	0	2	3	10	17	19	25	11	13	3월 10일
거주지방												
중부지방(수도권, 충청, 강원) (646)		0	0	1	4	12	15	20	25	13	11	3월 10일
남부지방(영남, 호남, 제주) (354)		1	1	2	3	9	13	25	23	12	11	3월 10일
이번 겨울 온도 인식												
예년보다 추움 (311)		1	0	0	4	8	13	17	24	15	17	3월 15일
예년과 비슷한 수준 (303)		1	0	1	3	10	12	24	26	11	15	3월 10일
예년보다 따뜻함 (304)		1	1	2	4	16	18	24	21	11	3	3월 8일
이번 겨울 강수량 인식												
예년보다 많이 내림 (152)		0	0	0	4	8	13	24	26	16	10	3월 14일
예년과 비슷한 수준 (303)		1	0	1	2	10	14	22	24	11	15	3월 10일
예년보다 적게 내림 (545)		1	1	2	4	12	15	22	23	12	9	3월 10일

질문: 체감상, 이번 겨울은 언제쯤 끝났다고 느끼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3. 27 ~ 3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이번 겨울은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기온은 평년보다 0.6도 높은 건조하고 온화한 겨울이었다. 2년 연속 이어진 건조한 겨울 또한 기후변화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번 겨울을 '꽤 괜찮은 겨울'로 받아들였다. 평균적인 날씨와 비슷했다는 인식이 58%로 과반을 넘었고, 기후위기를 체감했다는 응답은 48%로 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밑돌았다. 눈·비가 예년보다 적게 내렸다는 사실은 55%가 정확하게 인식하지만, 그것을 기후위기로 연결 짓지는 않는 모습이다.

지난 겨울과 여름에는 기후위기를 체감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지만, 이번 겨울은 그렇지 않다. 결국 사람들의 기후위기 인식은 폭설이나 폭우, 폭염처럼 일상에 직접 불편을 주는 경험에 더 크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 샘플(26년 2월 기준 전국 97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60,308명, 조사참여 1,537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7%, 참여대비 65.1%)
조사일시	• 2026년 3월 27일 ~ 3월 30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論論

HankookResearch

